북구체육회, 첫 '한마음 대축제' 성료

오승현 기자 | 입력 2025.11.04 17:51 | 댓글 0

북구종합체육관서 문인청장 등 300여명 참석
난타·댄스 공연·시상식 등 풍성한 축제 한마당
정희환 회장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북구 만들 것"

남도일보



광주 북구체육회는 지난 1일 북구종합체육관에서 '제1회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한마음 대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공굴리기 경기 모습./광주 북구체육회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체육회가 지역 주민과 체육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북구체육회는 지난 1일 북구종합체육관에서 '제1회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한마음 대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구민의 건강파트너! 소통하는 북구체육회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들이 함께 건강한 에너지를 나누고 지역 체육 발전의 새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꾸려졌다.

이날 행사에는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해 정준호(북구갑)·전진숙(북구을) 국회의원, 최무송 북구의회 의장, 신수정 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와 체육회 임직원, 종목단체 회장단,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축제를 빛냈다.

식전 행사에서는 난타팀과 메이퀸스라인댄스팀이 역동적인 공연을 선보이며 현장 분위기를 달궜다. 본 행사에서는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위한 시상식이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정준호·전진숙 국회의원상, 북구청장상, 구·시의장상, 북구체육회장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자들이 선정돼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풍성한 경품과 기념품이 제공돼 축제의 흥을 더했다.

정희환 북구체육회장(리치씨앤에스 대표이사)은 "한마음 대축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내빈과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북구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누리길 바란다. 앞으로도 주민 친화적인 체육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광남일보

스포츠

광주시북구체육회 한마음 대축제 '화합의 장'

체육회 임직원·관계자 등 300여명 참석

입력 : 2025. 11.04(화) 18:20



E



광주시북구체육회는 최근 북구종합체육관에서 '제1회 광주시북구체육회 한마음 대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4일 밝혔다.

지역 체육 발전과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문인 북구청장, 북구체육회 임직원 및 종목단체 회장단 ,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 식전에는 난타 공연과 메이퀸스라인댄스팀의 공연이 펼쳐져 활력을 더 했다.

본 행사에서는 북구 체육 발전에 공헌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6개 부문에서 시상식이 진행됐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 풍성한 경품과 기념품이 증정돼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정회한 북구체육회장은 "이번 축제가 북구 주민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주민 친화적인 체육 행사들을 꾸준히 기획, 건강한 북구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